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9.(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9일(수)부터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담당자	이상호 사무관(044-300-7441)
			김은엽 주무관(044-300-7442)

세종시의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등 행정수도 완성 위한 핵심 과제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안신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9일 의회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수반돼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으로 표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홍보활동에 더해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감대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동호 위원은 전국적인 홍보에 앞서 충청권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사의 TV 토론 등에 세종을 대표하는 인사가 적극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명숙 위원은 시민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등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및 연대 활동 추진 여부를 확인하며 충청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충청권과 전국에 미칠 유익성을 외부 지향적 방향으로 알리도록 행정수도 완성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과 특별공급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와 세종시민, 세종시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